

12/20/15

설교 제목: 창세 전에 이미 계획된 성탄

전하는 이: 김순배 강도사

말씀: 마태복음 1:1-17

- (마 1:1)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 (마 1:2)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 (마 1:3)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 (마 1:4)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 (마 1:5)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벧을 낳고 오벧은 이새를 낳고
- (마 1:6)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야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 (마 1:7)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아를 낳고 아비아는 아사를 낳고
- (마 1:8)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웃시야를 낳고 **절판주** 눅 1:27
- (마 1:9) 웃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절판주** 신 24:1
- (마 1:10)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 (마 1:11)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 (마 1:12)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 (마 1:13) 스룹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훗은 엘리아김을 낳고 엘리아김은 아소르를 낳고
- (마 1:14)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 (마 1:15) 엘리웃은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맛단을 낳고 맛단은 야곱을 낳고
- (마 1:16)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 (마 1:17) 그런즉 모든 대 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열네 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열네 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열네 대더라

대강절의 기다림을 끝내는 성탄 주일입니다.

대강절은 과거적으로는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현재적으로는 오순절에 강림하신 성령님께 감사하며, 미래적으로는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 세가지의 의미가 다 포함된 절기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이 세가지 중 지난 주 장래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추어 말씀 나눈 것에 이어서 오늘은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언제부터인가 성탄절 분위기가 이상해졌습니다.

올해도 성탄절 분위기가 예전과는 사뭇 다릅니다.

Merry Christmas!는 소리 소문도 없이 사라져 버린지 오래이고 Happy Holiday!만 공허하게 메아리칠 뿐입니다.

Happy Holiday!라면 무엇을 위한 Holiday 인지 Holiday 가 된 이유와 그 의미가 분명히 있어야 하는데도 그 모든 것이 감추어진 채 그저 놀고 먹고 선물 교환하고 영화 구경가는 날이 되어 버렸습니다.

메스컴은 성탄절 대목에 얼마나 많은 매출을 올릴 수 있을지만 뜨거운 관심사입니다.

몇 년전까지만 하더라도 Thanksgiving 이 끝나기가 무섭게 샵핑몰, 백화점, 호텔, 음식점, 거리 곳곳에서는 크리스마스 케롤이 울려 퍼지고 크고 작은 산타 할아버지와 썰매들, 크리스마스 트리들이 세워졌었는데 이제는 이런 것들을 찾아 볼려고 해도 찾기 힘듭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와 같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침묵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침묵한다고 진리가 없어져 버릴까요?

얼마 전 돌아가신 김영삼 대통령의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라는 유명한 말씀과 같이 진리는 영원히 불변합니다.

이 시간 엄연한 진리인 성탄에 대해 다시 한번 고찰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보기 따분하고 지루한 구절 중 하나이지요.
그러나 때때로 이런 구절 속에 보물이 숨겨져 있곤 합니다.
오늘 우리 그 보물을 찾아 봅시다.

마태는 예수님의 탄생을 역사적인 측면(1: 1-17), 가정적인 측면(1:18-25), 사회적 측면(2:1-23)에서 다루고 있는데 본문은 그 중 첫 번째 역사적인 측면에서 다룬 것입니다.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14 대씩 묶어서 3 시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14*3).

1) 첫 번째 시대 (아브라함-다윗까지)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다윗 왕 때에 비로소 완성되었습니다.

(창 12:1)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

(창 12:2)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2) 두 번째 시대 (솔로몬-여고냐 (바벨론에 포로가 되어 끌려 갈 때까지))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징계를 받고 아브라함이 본래 나왔던 곳인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옛 언약(구약)이 깨진 것입니다)

3) 세 번째 시대 (여고냐 (바벨론 포로)-예수님)

징계를 받고 바벨론에 포로가 되었던 이스라엘이 새 언약(신약)에 의해 다시 회복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됩니다.

마태 복음은 유대인을 위해서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 예언된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왕이라는 사실을 증거했습니다.

예수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왕이라는 사실이 증명되어야만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마태는 족보에 적힌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언약과 중요한 관계에 있는 사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왕을 중심으로 선택해서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했던 것입니다.

본문 들어가기 전에 혹시 똑똑하고 아무지신 분이 다음의 사실을 발견하고 성경에 무슨 큰 오류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실까봐 먼저 말씀드립니다.

본문의 족보는 모든 사람을 빠짐없이 다 기록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기록에 누구 누구가 빠졌다고 해서 이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역사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역사를 일일이 기록한 책이 아니라 전하려는 메시지에 맞도록 자료를 발췌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또 한가지는 세 번째 시대를 세어보면 1 스알디엘-2 스룹바벨-3 아비훗-4 엘리아김-5 아소르-6 사독-7 아킴-8 엘리웃-9 엘르아살-10 맛단-11 야곱-12 요셉-13 그리스도 이와같이 14 대가 아니라 이렇게 13 대 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마태가 여고냐를 두 번째 세 번째 시대 모두에 포함시켰기 때문입니다.

여고냐는 남 유다 마지막 왕인 19 대 왕 여호와김을 가리키는데 고니야, 여고니야 라고도 불렀습니다.

실제로 여고냐는 요시아의 아들이 아니라 손자이며 여호와김의 아들로서 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여고냐는 나라를 잃고 포로가 되어 바벨론에 사로잡혀 갔지만 당시 바벨론의 고급 관리였던 다니엘의 영향 때문인지 바벨론 왕은 여고냐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바벨론 왕은 여고냐를 실제 유다 왕으로 인정했으며 (당시 유다 왕은 시드기야였습니다) 유다 백성들도 시드기야 대신 여고냐를 실제 왕으로 여겼습니다.

그리하여 여고냐는 멸망의 시대인 두 번째 시대의 마지막 왕이었던 것과 동시에 새로운 은혜의 시대인 세 번째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사람이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여 마태는 그를 두 번째 시대와 세 번째 시대 모두에 포함시켰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족보를 보면 세 번째 시대에 다윗이 무대에서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등장하신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무대에서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등장하신데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다윗 왕 대신에 새로운 왕인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옛 왕국은 지나갔고 새 왕국이 왔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왕국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족보 속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만 하는데 성탄은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계획하시고 예비해 놓으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성탄은 2 천 년 전 유대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42 대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요약하면 아브라함, 다윗, 예수 3 대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아들(자손)이며 다윗은 아브라함의 아들(자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더 요약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아들(자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언제적 아브라함입니까?

아브라함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는 2 천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2 천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아니 창세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치밀하게 준비해 오셨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계획하시며 아브라함에게 중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창 13:14)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창 13:15)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창 13:16)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대 네 자손도 세리라

(창 13:17)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창 17:7)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나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갈 3:15)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갈 3:16)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하나님께서서는 아담의 타락을 이미 창세 전에 예견하셨고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이미 창세 전에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허락없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아무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욕기를 보아서 아시지만 심지어 사단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허락없이 독자적으로 행동할 수
없습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우리는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죄인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시편 기자는 51 편 5 절에서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음이여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
하였나이다”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사실을 바로 알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인 죄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첫째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의사와 상관이 없이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의인이 되는 것 역시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고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만 죄의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용인하고 계획하셨는지 의아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아담이 죄를 짓도록 용인하셨느냐? 말입니다.

아담이 죄를 지으려고 할 때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 막아 주시면 될 것을 말입니다.

이상하지요?

왜냐하면 이런 방법이 아니고서는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도무지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5 장의 탕자의 비유를 아시지요?

이 비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용인하고 계획하셨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합니다.

비유에서 둘째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자신이 얼마나 사랑을 받고 살고 있고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살고 있는지 전혀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옛말에 '복에 겨워 그러지'라는 말이 있지요?

둘째 아들은 복에 겨워 무례하게도 아버지가 돌아가시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요구하고 그것을 기어이 받아내어 아버지의 품을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때 아버지는 왜 둘째 아들에게 유산을 나누어 주었을까요?

안된다고 하면 될 것일요.

아버지가 아들이 요구한다고 그것을 꼭 들어줄 필요는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유산을 주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우선 그 요구는 타당성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에게는 아들의 요구를 거부할 만한 권위와 힘도 있었습니다.

또한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유산을 주면 가지고 나가서 무슨 짓을 할 것인지 그리하여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인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유산을 미리 주어 둘째가 집 나가는 것을 용인했습니다.

아버지의 예견대로 둘째 아들은 나가자마자 허랑방탕 술과 여자와 쾌락으로 재산을 다 날려 버렸습니다.

설상가상 그 해 흉년까지 들어 오갈데 없이 굶어 죽을 지경에 이르렀고 드디어 아버지의 예견대로 둘째 아들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오갈데 없이 거지 꼴이 되어 집에 들어온 아들에게 아들로서 합당한 옷을 다시 입혀 주고 아들로서 합당한 반지를 다시 끼워주고 아들로서 합당한 신발을 다시 신겨 주고 송아지를 잡아 동네 사람들을 초청해 잔치를 벌입니다.

둘째 아들은 그 날 아버지의 참 아들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둘째 아들 돌아온 탕자는 그제서야 아버지의 진정한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돌아온 탕자는 아버지의 용서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돌아온 탕자는 아버지와 더불어 아버지의 집에 사는 것이 얼마나 복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후로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아버지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롬 11:32)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공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두신 이유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함
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죄를 짓는 것을 용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도록 용인했고, 같은 원리로 하나님께서도 아담이 죄를
범하는 것을 용인하셨던 것입니다.

예수의 성탄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해서 살게 하시려고 창세 전에 계획하신 일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이제부터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온 둘째 아들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